

연중 제22주일

기도서 424 면 (C해)

제1독서: 집회 3, 19-21. 30-31

제2독서: 히브 12, 18-19. 22-24a

복음: 루가 14, 1. 7-14

# 숲정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홍보국
인쇄	관리국

편집실: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 강론



## 빵!!

### 현 유 복 신부

개구리 배가 터졌다. 어떤 개구리 한 마리가 여러 동료 앞에서 자기 배가 가장 크다고 뽐내려고 자꾸자꾸 배에 바람을 집어 넣었다. 얼굴은 사색이 되어 가면서도 허풍을 그만둘 수 없고, 또 최고의 배를 만들어 자랑하고픈 심정으로 바람을 넣고 또 넣다가 그만 터져버린 것이다.

요즘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남보다 더' 돋보이고 싶은 본능으로 "~인 체" "~인 양" 안간힘을 쓰고 있다. 될 수 있는대로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남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눈알을 뺄같이 번들면서 비둘기 같은 순진함을 잃은지 오래다. 자신에게는 무지무지하게 너그러우면서도 남에게겐 정반대로 냉혹하다. 남 한 개 갖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 아홉 개를 열 개로 채우기 위해 무슨 일이든 서슴치 않는다. 하느님 앞에 마땅히 드러야 할 영광과 찬미도 자신 앞으로 몽땅 돌려 가로챌 버린다. 하느님 앞에, 이웃 앞에 나눌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보면 하느님은 확실히 하느님이시다. 약삭빠르고 똑똑한 계산으로 생각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다. 천상 천하의 최고인 분이 사람 대접도 못받은 종의 신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남을 나보다 훌륭하게 여기도록 가르치셨다. 낮은 곳으로, 보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이 넓고 풍요로운 바다를 만나듯이 낮은 사람이 되었을 때 바로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하시고 가르치신 것이다. 높은 하늘 위에 계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내가 우습게 본 밑에 있는 사람들, 사소한 일과 보잘것 없는 사건 안에 하느님의 현존을 깨닫게 하신다.

첫 인간들이 교만의 죄에 빠졌을 때 잃은 것은 무엇이고 얻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영원한 삶과 풍요로운 하느님의 품을 잃어버린 채 죽음과 고통만을 손에 쥐고 낙원에서 쫓겨나지 않았는가? 최고의 배를 뽐내려던 개구리가 가장 귀한 생명을 잃었듯이 '자기만'을 찾는 인간 역시 모든 것을 잃게 되리라. 한 단계 불륜을 낮출 때, 우린 조용하게 만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으며 한 단계 더 낮은 자세로 만날 때 서로의 존경과 사랑이 싹트리라.

"누가 혼인 잔치에 초대하거든 뒷자리에 가서 앉지 말라. ...오히려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다른 모든 손님들의 눈에 당신은 영예롭게 보일 것이다".

(용안 성당 주임신부)



## 순교자의 처형

아키노는 지혜와 용기와 신념의 정치인이었다. 그는 혁명을 하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빈사상태의 필리핀 자유민주주의」에 회춘(回春)의 바람을 불어 넣고자 한 「자유주의자」였을 뿐이다. 그러나 그는 무력혁명이나 당할 수 있는 그런 「무자비하고 끔찍한」 죽음으로 죽어갔다. 신사적인 툴(구축)을 지켜 정치위기 타개를 위해 이야기 해보자고 돌아온 그는, 하이논(대낮)에 하이논(美 서부 영화) 총잡이들이 무색할 정도의 "치사스럽고 저열한 음모"로 피살되었다. -이는 한 재야(在野) 정치인의 죽음을 그린 보도내용의 일부이다.

그는 권좌에 앉아 평평거리는 정치인도 아니다. 다만 필리핀의 자유민주주의를 꽃 피우기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고 감옥과 외국을 순례하던 지도자였다. 그러한 그의 죽음에 자계의 반응은 「순교자」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의 죽음은 암살이 아닌 「처형」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죽었다 해도 세계적인 이목이나 관심이 그토록 집중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후진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의 허물만 뒤집어 쓴 정권 아래서나 볼 수 있는 비극에 가슴이 아프다.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는 엄연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우리는 몇 일 전에 마르크스의 불의와 싸운 필리핀의 지성과 교회에 박수를 보낸 바 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필리핀에 관심을 보내며, 아키노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되지 않기를 빌어야 한다. 애국이라는 허울로 뒤덮이 되는 독재가 다시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기를 기원해야 한다. 상황의 변화를 이류삼아 "나 아니면 안된다"고 나서서 사람들을 저지할 수 있는 용기를 "가다듬어야 한다."

주여 아키노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숲정이 산책

왜 승용차로 새벽 2시에 후문(后門)으로 석방했을까?

□ 미디어 교육 세미나에 다녀와서

### 미디어 교육이 시급하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가 원하건 원치않건 간에 홍수처럼 쏟아져 밀려오는 미디어(신문, 방송 등)의 소리를 접한다. 그것이 사건을 알리는 보도의 소리이건 미디어 생산자(언론인)나 그밖의 기고가와 출연자가 해내는 논평의 말이건 수용자(독자, 시청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일반 수용자들은 미디어 환경 속에 생활하면서도 비판적이고 선별적인 노력없이 미디어의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TV의 예를 들어보자. 1983년 3월말 현재 우리나라 TV수상기 등록 대수는 모두 7,436,106대(이중 컬러 TV는 2,378,105대)로, 이는 국민 5명당 약 1대꼴로 거의 전국 모든 가구당 1대씩에 해당하는 숫자이며, 시청량도 보급률에 못지않아, 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심한 경우에는 취침시간을 뺀 일과의 약 3분의1인 5~6시간을 TV시청으로 소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국민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1일 평균 2시간 27분 정도를 TV시청에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894시간 15분이고, 일수로 환산하면 약 38일로 1년중 1개월 이상을 TV와 함께 지내는 셈이다.

이같은 과다한 TV접촉량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성인은 물론 특히 어린이, 청소년의 언어생활, 행동양식, 사고방식과 품성 및 인격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이른바 아니라 우리 주위의 실례로도 증명되고 있다. '600만불의 사나이'를 흉내내려다 생명을 잃은 어린이, 모험만화를 모방하여 가출했던 어린이들, 청소년의 폭력과 범죄모방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기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교회는 「매스 미디어에 관한 교령」에서 “매스 미디어의 힘은 사람들이 착실하지 않으면 느끼기도 어렵고 의지로 억제하기도 어려우며 아주 없어야 할 경우에 전혀 무시하기도 대단히 어려울 정도로 큰 위력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매스 미디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용하는 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충실히 실천에 옮겨야 할 윤리 질서의 범위가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근년에 와서 학자들은 시청자들의 수동적인 수용태도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매스 미디어에서 시청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TV유해론(有害論)이 대두되고 있으며 미국, 호주 등지에서는 각종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미디어에 대한 교육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우리는 미디어에 대한 보다 능동적인 자세, 즉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분별할 수 있고, 무엇이 잘못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널리 알릴 수 있는(미디어 생산자까지) 자세가 필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 어느 해군 병사의 입교

임 정 훈(안토니오)

며칠 전, 전에 내가 근무했던 구축함 B함의 배중사로부터 반가운 편지를 받았다. 배중사는 나의 대부이고 친형과도 같은 사람이다. 이 편지는 나의 신앙생활을 되돌아 보게 해주었다. 작년 성탄 때 세례성사를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때까지도 나는 참 한심한 녀석이었다. 종교인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불완전한 인간이며, 혹은 위선자이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자에게나 맞는 것이지 사내 장부가 종교를 믿어선 안된다는 일종의 신념을 갖고 있었으니까.

내가 어렸을 적에 할머니는 곧잘 무당을 불러다 무슨 굿이며 살풀이를 하였고 나는 이것이 친구들에게 창피스러웠다. 또한 할머니는 교회에 가는 걸 큰일이라도 나는 양 금기로 하였고 나는 언제부턴가 교회를 지나는 것조차 꺼리고 무당굿은 더더욱 망측스러워했다.

해군 함대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씩 종교활동이 주어지는데 수요일 저녁과 일요일 오전이다. 군대에선 종교의 자유는 100%라면 무종교의 자유는 없다고나 할까. 종교활동 시간에는 어느 곳에든 참석해야 하나. 나는 이때부터 대표적인 3대 종교를 모두 섭렵하기 시작했다. 사월 초파일에는 해안사로 그리고 부활절이나 성탄절에는 청해관으로, 비오는 날에는 가장 가까운 불교회관으로, 몸이 피곤할 적엔 청해관의 특신한 좌석에 앉아 목사의 설교를 자장가 삼아 고개를 물었다. 개신교, 불교, 천주교 이 셋 중에서 가장 인기없고 신자가 적은 곳이 천주교였다. 예산이 적어 행사 때 기념품도 잘 안출 뿐더러 미사에 참석하면 일어섰다가 앉았다 하는 통에 도무지 잠을 청할 수가 없었다. 물론 나는 천주교 미사에는 남의 말만 듣고 아예 가지도 않았다. 이때까지 군종목사의 정열적인 설교에도, 가사를 걸친 군종스님의 짧은 안경테와 지성적인 눈매, 낭랑한 목탁소리에도 나의 종교를 기피하는 신념에는 추호의 변화도 일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하루는 해군 성당에서 무슨 영화를 상영한다는 빅뉴스를 듣고 호기심을 잔뜩 품고 성당에 도착했다. 막상 들어와 보니 일종의 선교 필름인데 81년 여의도 신앙대회 다큐멘터리였다. 비록 나의 호기심은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화면 속의 미사 광경은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어느 종교 집회보다도 인간이 하느님께 드리는 가장 엄숙하고 경건한 것이었다. 나는 영화가 끝나고 김신 부님과 만나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이미 내 마음안에 존재했던 하느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세례는 신자생활의 출발이요, 신앙의 여정을 앞으로도 창창이다. 가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나는 뭉개뭉개 일어나는 흰구름 사이 언뜻 내보이는 아득한 푸른 하늘 어디선가 들어주실 그분을 향해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기도를 암송한다.

(전북 옥주군 미성읍 어청도리)

금·은·보석·시계는  
전주 남문역 교우집!  
**금 보 장**  
장(방지거) 채(마리아)  
☎ 6-4989(사구팔구)  
최신 컴퓨터 조정기 특설

유럽 성지순례 출발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 일 관 광**  
☎ 6-666~8  
조(안토니오) 선

□ 신장개업  
**대 건 다 방**  
개업일: 8월 28일  
전동 내진시험 지하  
☎ 6-4455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김 유리안나(춘형)

□ 마춤 · 대여 □  
**신 부 의 집**  
\*웨딩드레스·연주복·  
비디오촬영·페백의상·  
신부부케·야외촬영  
판통도로 서울신탁은행 앞  
전화 ⑥ 6951  
정 인 기(눈치보)



□ 교구 사회복지 사목부 회보 발행

교구는 금년 초부터 모든 신자들에게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일깨워 주고, 보다 조직적으로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사목국 내에 사회복지 사목부를 두고 준비해 오고 있다.

사회복지 사목부에서는 각 본당과 단체에서 불우한 이웃을 돕는 사랑의 운동이 개인적으로 또는 각종 조직(빈첸시오회, 각종 후원회)들을 통해서 전개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할 때나 함께 돕기를 원할 때 사회복지 사목부에 연락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회복지 사목부는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회보 "그리스도이신 이웃들"을 발행하여 사랑의 정신을 계몽하고 각종의 활동을 소개할 예정이다.

□ 성골베 신부 성인품 1주년 기념 일본 성지순례

성모 기사회에서는 일본 나가사키 성모 기사 수도원의 초청으로 성골베 신부 성인품 1주년 기념 제전에 함께 참여할 성직자, 교형 자매 여러분의 일본 성지 순례단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일 정: 10월 8일~15일(7박 8일), 회 비: 650,000원 신청마감: 8월 31일

코 스: 후쿠오카→나가사키→오사카→교토→동경

문의처: 파티마 성당 김 영일 신부(020915), 제일관광 국제부(06666)

□ 마니피캣 합창단 신입단원 심사

가톨릭 전주교구 대학생 연합회 마니피캣 합창단에서는 성가를 통하여 주님 안에 함께 호흡할 신입단원 심사를 가집니다.

일 시: 9월 5일 오후 5시 30분 장 소: 가톨릭 센터 학생회관

참가대상: 성가에 관심있는 신자 및 예비신자(전문대학 포함)로 각 대학에 재학중인 자

심사방법: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실기시험은 성가 및 국내외 가곡 중 1곡을 선택)

문의 및 신청: 교구청 내 교육국 ※ 성가에 관심있는 분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서울에 있는 全高 동문들의 성지순례

—9월 11일 11시, 치명자산에서 미사 —전주 동문들에게 많은 참여 바라

서울에서 활동하는 全高 동문들의 모임인 순정회(회장 한 용희 교수)가 결성되었다. 이들은 첫 모임에서, 한국 최초의 방인 자치교구민의 긍지를 갖고 전주교구의 발전과 움직임에 깊은 관심을 갖기로 했다 한다. 따라서 순정회는 우선 전주교구의 성지를 순례하기로 결정하여, 오는 9월 11일 오전 11시 승암산 누갈다 묘에서 미사를 봉헌한다. 아울러 이 기회에 교구 내에 있는 전교 동문들도 자리를 함께 하여 우정을 나누고자 한다. 뜻있는 동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문의처: 교구청내 유 장훈 신부, 00041)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 83년도 전주교구 초·중·고 교리경시대회 답안

초등부: ①1984 ②병인 ③오가작통법 ④방인자치교구 ⑤전주 ⑥이루갈다 유요한 ⑦윤지중(권상연) ⑧유향경 ⑨이아나다시아(봉금) ⑩달래 ⑪남문밖(전동성당 근처) ⑫진산 ⑬중바위(치명자산) ⑭여산 ⑮천호 ⑯백지사 ⑰복자 ⑱조운호 ⑳7 ㉑순정이

중등부: ①4 ②1 ③4 ④4 ⑤1 ⑥4 ⑦3 ⑧2 ⑨4 ⑩1 ⑪1 ⑫2 ⑬4 ⑭1 ⑮3 ⑯3 ⑰1 ⑱4 ⑲4 ⑳1 ㉑2 ㉒4 ㉓2 ㉔4 ㉕1 ㉖1 ㉗3 ㉘3 ㉙1784 ㉚1831 ㉛미리내 ㉜최양업 신부 ㉝1937

고등부: ①2 ②4 ③3 ④1 ⑤1 ⑥2 ⑦4 ⑧2 ⑨3 ⑩3 ⑪1 ⑫4 ⑬3 ⑭1 ⑮2 ⑯3 ⑰4 ⑱3 ⑲1 ㉑2 ㉒2 ㉓1 ㉔7-복자 ㉕-절두산 ㉖7-유요한 ㉗-이루갈다(7, ㉘ 순서가 바뀌거나 이름을 써도 됨)

요심이 (525) 김병오

마르코스 대통령 입니까? 아케노 암살사건으로 골치아프겠어요!

18년간 독재정기 집권하느라고 밤잠 못잔때도 많았네요...

분명히 알아들었어! 하나있어요!

총칼로 흥한자는 총칼로 망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눈을 편 하고 보호하는 시원하게  
**보안당** **센터**  
 구역전 오거리  
 전화 ③ 3 0 3 2  
 윤(베드로) 중순

각종 수입약품 완비  
 (간장, 빈혈, 영양제 등)  
 친절 상담 봉사  
 염가 판매 조제  
**군산 태 광 약 국**  
 구시장 오거리 ②1800  
 이 루도비코(원석)  
 최 테레사(순정)

• 훈수(회갑) 옷감 | 도매상  
 • 특수 파티복 \*  
 • 고급 침구류 |  
 • 각종 솜 일체 |  
 • 커넥지 |  
**서울주단**  
 ☎ ③0453 ⑤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장례 수의 센터**  
 (함복전문)  
 신자들의 많은 이용 바람  
 연락처 ② 9 1 9 3  
 ② 0 9 1 5  
 주-배 바울라(만녀)

전주 노라노 양재,  
 미용, 한복 학원  
 미용 시험일자 9월 18일  
 2차 11월 6일  
 미용, 양재, 한복, 재봉과  
 수시 모집, 개인지도, 가  
 정양재반, 기숙사 완비,  
 통학권 발급  
 전주시 교사동 1가 429  
 전북 적십자사앞 5층건물  
 김 베드로 · 김 안나

**가나혼인(結婚)**  
**상 담 소**  
 (관허 제13호)  
 ◇연락처  
 ☎ 72-3925(성모병원3층)  
 ☎ 72-3105(천사의 집)  
 상담자: 김 모 세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 축! 견진-수류 본당 (28일)

- 축! 무주 사제관 기공식 및 견진: 9월 4일 오전 10시
- 1. 교구 올드레야: 오늘 10시부터, 장소-가톨릭 센타 3층
- 2. 순교자 유해 순회기도회: 수류-27일~28일, 고창-29일~30일, 정읍-9월 2일~4일
- 3. 가정법원 개원일: 29일, 시간-오후 12시 30분, 장소-교구청
- 4. 200주년 제2차 교구 사목회의: 30일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센타 3층
- 5. 제3차 어린이들의 모후 소년 꾸리아: 9월 4일 오후 2시, 장소-군산 오룡동 성당 L.M 회의실
- 6. 센타 예비신자 교리반: 매주 금요일 저녁 7시30분
- 7. 범 기봉 신부 출국: 25일, 필리핀 라디오 베리마스 근무 위해
- 8. 7지구 교리교 율레회: 9월 3일 4시30분, 장소-합열 본당

(중앙)

전화 ①7111~3

주임 신부 문 정 훈  
보좌 신부 안 철 인  
사도 회장 김 철 인

- 1. 반장 모임: 9월 1일
- 2. 가정방문: 12, 33번
- 3. 육사생도 방문: 29일
- 4. 신축현금 수입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진상례·이효은(각 2만원), 이상귀(3만원), 윤보선(10만원), 류주기도-458, 153만 봉헌  
납입총계-72,987,500원)
- 5. 학생회 임시총회: 28일 9시 미사후, 강당
- 지난주 봉헌금: 882,368원 교무금: 563,800원
- 감사헌금: 박서운(50,000원)

(노송동)

신부 ①0969 수.사 ②7032번

주임 신부 김 용 태  
보좌 신부 홍 준 세  
사도 회장 이 춘 재

- 1. 본당신부님 출국: 구라과 성지순례차 24일 출국
- 2. 200주년 기념주일: 다음주는 특별현금 있음
- 3. 구역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특히 남자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4. 모니카회 정기총회: 27일에 있었습니다
- 5. 감사헌금: 중노1가 최미례사제(5만원) 감사합니다
- 6. 아파트 소식: 다음주 공식미사 중에 예비자 환영식
- 7. 중학생 모임: 9월 4일 오후 4시, 예비자를 포함한 모든 중학생은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397,255원 아파트: 78,360원  
교무금: 266,500원 아파트: 26,000원

(덕진)

신부(3)2182 주임 신부 김 봉 희  
수녀(72)1222 보좌 신부 정 양 상  
사무(72)6259 사도 회장 양 상 열

- 1. 진복회 율레회의: 오늘
- 2. 레지오 마리아 특별연수(교육): 29일~31일 밤 8시~10시(3일간) 레지오 전단원 꼭 참석 바랍니다
- 3. 예비자 교리반: 9월 1일 개강(성탄영세 예정)  
교리시간-매주 수요일 저녁 8시(젊은이 학생)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직장인)
- 4. 사도회 상임위원회: 3일 저녁미사 후
- 5. 다음주일 모임예고  
구역장 반장 모임: 9월 4일 공식미사 후  
형제회(반모임) 개최: 9월 5일부터 매일밤  
일정은 다음주 발표: 배보 참조
- 6. 정양현 신부님 교육 참석: 29일~9월 3일까지
- 지난주 봉헌금: 461,410원 교무금: 589,000원

(복자)

전화 ②5238번

주임 신부 권 영 교  
사도 회장 조 성 호

- 1. 사도회: 오늘 저녁미사 후
- 2. 첫침례 6: 9월 1일 저녁 8시  
첫침례 7: 9월 2일 저녁 8시
- 3. 200주년 기념부처 판매: 1가정에 1개씩 2,500원
- 4. 푸른군대 성모마리아 신심세미나: 29일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 저녁 8시~10시,  
식사-안토니오 신부
- 5. 견진밤으실 분: 속히 사무실에 신청
- 6. 수녀원 신축현금: 윤순호(10만원), 허정애(1만5천원), 철순님·서용현·이봉운(2만원), 안정숙·오영길·김정남·장종실(각 1만원), 이덕순·김루시아·강순례(각 5천원), 이길용(2천5백원),  
누계-462,230원
- 7. 금주전례: 해설-이충원, 독서-①양규철 ②박상기  
처주전례: 해설-이명래, 독서-①이갑진 ②정동민
- 지난주 봉헌금: 476,210원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 병 환  
사도 회장 한 형 수

- 1. 예비자 교리시간: 매주 공식미사 후-성인반  
매주 화요일 저녁미사 후-청년반  
매주 토요일 오전 5시-중·고생
- 2. 유아세례: 매일 첫째주 공식미사 전
- 3. 2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기념품 판매: 사무실
- 4. 가톨릭시보 구독자 신청 바람: 사무실
- 5. 사제양성 후원회에 관심을 갖습니다
- 6. 차주전례: 독서-①신영창 ②함문권
- 지난주 봉헌금: 280,200원 교무금: 285,000원

(순정이)

전화 ①7366 수.유 ②9567

주임 신부 김 중 길  
사도 회장 김 수 길

- ※ 미사시간 변경(29일부터): 새벽미사-06:00  
저녁미사-19:30(토요일-19:00)
- 1. 오한회 율레회: 오늘 공식미사 후
- 2. 구역 정·부회장 모임: 오늘 공식미사 후(유치원)
- 3. 애령회 총회: 오늘 공식미사 후(강당)
- 4. 200주년 기념주일 헌금: 다음주일(9월 4일)
- ※ 평신도 강론: 이규철(다음주일)
- 5. 금주전례: 해설-이귀래, 독서-홍성조·선종현  
기도-이은자·강 삼  
처주전례: 해설-정주복, 독서-김종환·송홍호  
기도-이강노·박병일
- 지난주 봉헌금: 179,990원 교무금: 415,500원

(전동)

신부 ①6208 주임 신부 김 병 업  
사무 ②3222 보좌 신부 박 찬 길  
수녀 ③8347 사도 회장 이 중 두

- 1. 글라라 형제회: 오늘 오후 1시30분
- 2. 사도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 3. 유아세례: 다음주 8시30분 미사후
- 4. 성가정회: 9월 1일 12시
- 5. 글로리아 성가대 단원모집: 연락처-사무실
- 6. 김세시아 수녀님 M.E. 주말교육: 26일~28일  
교우 여러분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 7. 200주년 기념 특별현금 있음: 9월 4일
- 8. 다음주 전례  
아침미사: 해설-박종구, 독서-①김동연 ②최병래  
공식미사: 해설-양현홍, 독서-①박도식 ②김홍기  
저녁미사: 해설-김윤주, 독서-①김희진 ②정양수
- 지난주 봉헌금: 631,770원

(파티마)

신부 ①0915 주임신부 김 영 일  
수녀 ②4804 사도회장 황 희 상

- 1. 성모회 율레회: 9월 2일
- 2. 성모기사회: 9월 3일 오후 2시,  
기사회 미사를 토요일특전미사로 합니다
- 3. 꾸리아 회합: 다음주일 오후 2시
- 4. 사도회 율레회: 다음주 있음
- 5. 9월은 복자성월: 복자님들이 시성되기 위해 매일 열심히 기도합니다
- 6. 병자성사 신청: 시내 모든 신부님들께 예모있게
- 7. 본당신부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8. 다음주는 200주년 기념사업들을 위한 봉헌의 날  
여러분들의 정성을 부탁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236,730원 교무금: 338,000원  
최바로 환자 성금: 130,000원-전 동성당에 전달